

타이거살롱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평론가들의 비평과 감상을 전합니다.

좋은 케이팝의 조건

잘 만든 케이팝은 무엇일까. 내가 대중음악평론가로 활동을 시작할 때만 해도 평단은 케이팝, 아니 아이돌 음악에 깊은 편견을 갖고 있었다. 공장에서 찍어내는 기계적인 음악, 자아 없는 꼭두각시, 무지한 댄스곡 등의 수식이 흔했고 상업적 성과와 전문가별점이 반비례하던 시절이었다. 물론 정말 다 그런 노래만 범람하던 것은 아니다. 당시 최신 유행 트렌드 요소를 적절하게 활용하여 기승전결이 분명하고 모두가 따라 부를 수 있는 노래도 많았다. 소수의 편견 없는 평론가들이 이런 작품을 주목하고 또 국내에 소개하며 케이팝도 하나의 독립된 음악 장르로 그 예술성을 인정받게 되었다.

오래도록 좋은 케이팝의 조건은 좋은 음악이었다. 다소 애매하게 들릴 수 있지만, 작곡 분야에 한정되었다고 이해하면 편하다. 퍼포먼스 없이 노래 자체만으로 매력을 끌어낼 수 있는 앨범, 그룹, 기획사가 고평가받았다. 너무 정직한 훅(Hook) 송이어도 안됐고, 지나치게 난해한 콘셉트도 없어야 했다. 해외 팝 유행을 활용하는 것은 좋으나 어느 정도 선을 넘으면 복제와 표절이라는 비판이 뒤따랐다. 전문가들은 매력적인 가사를 쓰는 작사가와 대번에 귀를 사로잡는 멜로디를 만들어내는 작곡가, 이를 알맞게 다듬어내는 프로듀싱 팀의 역할을 집중해서 바라봤다. 여기에 그룹 멤버들의 가장 능력도 중요한 평가요소였다.

인기가수가 기획사를 설립해 운영하고 신인 그룹을 키워내던 케이팝 초창기에는 이 관점이 유효했다. JYP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한 박진영은 원더걸스, 2PM, 2AM, 미스에이 등 자사 아이돌 그룹 노래 제작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YG엔터테인먼트에는 양현석의 신임을 받으며 지금까지도 회사를 이끌어가는 원타임의 테디가 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SMP 장르를 만든 SM엔터테인먼트의 유영진 이사와 이수만 프로듀서 콤비는 2000년대 케이팝 시장을 정복했다. 이 당

시 케이팝에 대한 비판은 그룹을 향한 것이 아니라 작곡가와 제작진에 대한 성도에 가까웠다. 뛰어난 커리어를 쌓은 뮤지션들, 특히 해외 팝에 깊이 빠져 있던 음악 마니아들이 제작자로 나서 내놓은 결과물을 기존 가요를 바라보듯 평가하다 보니 불협화음이 쌓일 수밖에 없었다. 그만큼 아이돌 그룹 멤버의 퍼포먼스나 가창, 캐릭터에 대해서는 크게 주목하지 않았던 시기기도 했다.

2022년의 케이팝에도 이 기준은 유효할까. 급속도로 산업 규모를 불린 오늘날 케이팝은 작가주의적 세공품보다 체계적인 공정을 거쳐 제작되는 다품종소량생산 상품에 가까워졌다. 기획팀, 작곡팀, 프로듀싱팀, A&R팀, 마케팅팀, 퍼포먼스팀이 세밀하게 나눠진 역할에 맞춰 가안을 내놓으면 최종 결정권자가 확인 후 결정을 내려 세상에 출시하는 방식이다. 최근 케이팝 곡 중 작곡 크레디트에 단 일 아티스트 한 명의 이름이 올라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 앨범 뒤에 수록된 크레디트는 영화 한 편과 그 길이를 견줄만하며, 결과물을 바탕으로 또 다른 지식재산권(IP) 확보를 위해 추가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까지 감안하면 실로 아마어마한 프로젝트다. 이 과정을 1년에 적게는 몇 번, 많게는 수십 번도 넘게 반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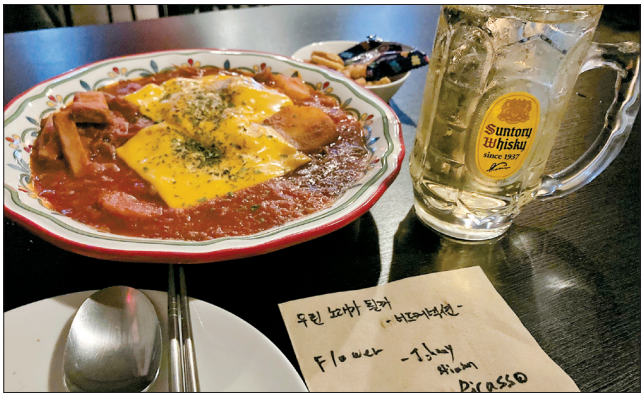
이제는 단순히 좋은 음악이라 하여 그 케이팝 콘텐츠가 훌륭하다고 평가할 수 없는 시대다. 노래는 좋는데 뭘했다는 ‘숨든명’이 등장한 이유다. 반대로 다양한 콘텐츠와 입체적인 세계관으로 중무장했는데 노래가 아쉬운 경우도 있다. 케이팝 콘텐츠를 냉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나무보다 숲을 바라봐야 한다. 인체를 이루는 모든 요소가 유기적으로 조화롭게 구성되어 있듯, 각 제작 분야가 정교하게 맞물려 떨어져 튀는 부분 없이 듣는 이를 설득할 수 있는 케이팝이 오늘날 웰메이드의 칭호를 획득한다. 단순히 인기가 많고 많이 팔린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영광은 아니다.

김도현 대중음악 평론가

아랑줄띠 - ㉓ 종암 ‘SIL’

‘아랑줄띠’는 알아두면 좋을 곳이란 뜻의 제주도 방언입니다.

갈색 냅킨 한 장에 위로를 담아



길을 걷다 어딘가에 시선이 확 꽂히본 적이 있는가. 스산한 밤공기를 뚫고 빛나던 빨간 네온사인. 보통은 가게 전화번호가 적혀있을 간판의 우측 하단에 ‘무국적 술집’이라는 낯선 문구가 쓰여 있던 그곳. 그 빨간 불빛에 마치 최면이라도 걸린 듯, 발걸음이 자연스레 이끌렸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수많은 오브제들이었다. 은색 미러볼, 벽에 걸린 LP판, 그리고 비틀즈가 애용했다던 바월스&윌킨스(B&W) 스피커까지. 어울리지 않지만, 어색하지도 않은 다양한 오브제들의 향연이었다.

두 눈이 그러한 모습에 익숙해질 때쯤, 컷가에 들려오던 노랫소리가 갑자기 온 신

경을 사로잡았다. 냅의 ‘기억을 걷는 시간’이었다. 잘 아는 노래인데 평소엔 찾아 들진 않았던, 도입부 몇 마디의 전주만으로도 감탄사를 절로 이끌어내는, 그런 음악들이 이곳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이 합쳐져 만들어지는 특유의 아늑한 분위기가 너무도 마음에 들었다.

음식과 주류는 ‘무국적 술집’이라는 칭호에 걸맞게 정말 각양각색이다. 새우완자탕, 굴튀김, 까르보나라, 사케, 꼬냐, 와인. 무엇을 먹을까 쉽게 결정하지 못했다. 그래서 ‘오늘의 요리’라는 메뉴를 시켜 선택을 위임해봤다. 그러자 나온 음식은 베이컨토마토스튜, 메뉴판엔 없는 특별한 음식이었다. 냅킨케이스 옆에는 펜이 하나 놓여있다.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갈색 냅킨을 한 장 꺼내 그 펜으로 신청곡을 쓰면 된다.

같이 갔던 친구들과 각자 오늘을 마무리하는 노래를 한 곡씩 적어 신청했다. 그날은 나에게 여러모로 싱상생생했다. 유독 바쁘고 다사다난했던 한 주를 보내며 여러 동료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음을 알게 된 날이었다. 어쭙잖은 위로는 그들에게 아무런 힘이 되지 않을 것임을 알기에, 헛헛한 마음을 뒤로 하고 너드커넥션의 ‘우리 노래가 될까’라는 노래를 냅킨에 적었다. “몇 해의 시간이 흘러가면 함께 울었던 날들 모두 추억이라 부를까” 이 노래의 마지막 구절이 그들에게 당기를 바라며,

문원준 기자 mondlicht@

KUDiary 10월 1주차 학사일정 안내

교내 학술·문화 행사 및 각종 공지를 안내합니다. 제보: press@kunews.ac.kr

〈행사〉			
일시/장소	행사명	주최	문의
10월 5일 16:30 - 17:50 서관 132호	14차 김준엽 렉처, 최장집 교수 “탈냉전 시기의 미국 민주주의와 한국 민주주의”	재단법인 사회과학원, 본교 아세아문제연구원, 본교 문과대학	아세아문제연구원 02-3290-1600
10월 7일 13:00 - 15:30 대강당 한국일보홀	나홍식 명예교수 K-MOOC 특강 “생물학적 인간”	본교 교수학습개발원 원격교육센터	교수학습개발원 원격교육센터 02-3290-1586 mooc@korea.ac.kr

〈모집〉			
일시	행사명	내용	문의
10월 4일 10:00 - 10월 17일 17:00	2023학년도 전기 일반대학원 내국인 신입생 모집안내	석사, 박사, 석·박사통합과정 모집	대학원행정팀 02-3290-1356/1357
10월 4일 10:00 - 10월 11일 17:00	2023학년도 전기 컴퓨터정보통신대학원 신입생 모집	인공지능융합학과, 빅데이터융합학과, 소프트웨어보안학과 석사과정 모집	컴퓨터정보통신대학원 행정실 02-3290-4931
10월 4일 10:00 - 10월 17일 17:00	2023학년도 전기 정보보호대학원 신입생 모집	정보보호학과 석사, 박사, 석·박사통합과정 모집	정보보호대학원 행정실 02-3290-4251
10월 4일 10:00 - 10월 17일 17:00	2023학년도 전기 KU-KIST융합대학원 신입생 모집	NBIT융합전공 석사, 박사, 석·박사통합과정 모집	KU-KIST융합대학원 행정실 02-3290-5901

〈학사공지〉		
일시	모집명	문의
10월 5일 10:00 - 10월 11일 23:00	2022학년도 겨울계절수업 개설희망과목 신청	학사팀



퀴즈 - 지우면 보여요



왼쪽 QR코드를 통해 고대신문 페이스북에 접속 후 퀴즈를 풀어주세요. 각 문항의 정답에 해당하는 글자를 찾아 표에서 지우고 남은 글자를 조합하면 정답이 나옵니다. 정답과 이름, 학과, 학번, 전화번호를 기재해 open@kunews.ac.kr 또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고대신문으로 보내주세요. 정답자 중 2명을 추첨해 2만원 상당의 문화 상품권 코드를 전해드립니다.

고대인의 시선(詩選)

시(詩)에 대한 감상을 담아냅니다.

강 건너간 노래

- 이육사

선달에도 보름께 달 밝은 밤
앞 냇강 쟁쟁 열어 조이던 밤에
내가 부른 노래는 강 건너 갔소

못 잊을 계집에 집조차 없다가에
가기는 갔지만 어린 날개 지치면
그만 어느 모래불에 떨어져 타 죽겠소

강 건너 하늘 끝에 사막도 닿은 곳
내 노래는 제비같이 날아서 갔소

사막은 끝없이 푸른 하늘이 덮여
눈물 먹은 별들이 조상 오는 밤
:
(중략)

결과가 불분명한 바람을 이루기 위해 막연한만을 가진 채 무언가를 실천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 일이 실제로 귀결된다는 것을 직감한 상태라면 더욱이 도전의 이유를 찾지 못하고 포기할 수도 있다.

‘강 건너간 노래’에는 이루어지지 못할 소망임을 알면서도 성실히 그 과정에 임하며 갈망함을 멈추지 않는 화자가 등장한다. 밥이라는 현실에서 어둠을 비판적으로 보지 않고 그로 인해 고통을 회상되는 과거를 무지개로 표현한 것이 인상 깊다. 또한 지쳐 불탈 것임을 알면서도 여전히 노래를 보내겠다는 절절한 시구는, 염원하던 순간이 도래하지 못할 것을 알지만 그 것만을 위한 현재를 살아가겠다는 굳은 의지의 표명으로 읽힌다.

사회에 유의미하다 평가받는 결과가 아닐지라도, 타인에게 인정받는 결론에 다다르지 못하더라도, 그 안에서 자신만의 가치를 찾고 도전을 멈추지 않는 모습이 멋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외로워 보인다. 조국을 되찾고자 노력하는 모습은 지금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 송고하나 ‘현대인’들은 그것을 누구나 할 수 없는 행동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다수의 현대인은 형태적 결과가 보장되지 않는 삶을 기피한다. 사회가 규정한 때에 남들이 해낸 것을 이루지 못하면 큰일나는 줄 알았다. 저마다의 과정과 깨달은 가치를 결과로 인정하지 않는 시선에 나도 응해야 한다고 믿었던 적도 있다. 그래서 바라는 게 있어도 이루지 못할 것 같다면 기꺼이 포기해버렸다. 실패를 직감하고 그 만두어버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제는 헤아릴 수도 없다.

그러나 어쩌면 속단이었을지도 모른다. 실패한 도전은 무의미하다는 생각에 결과와 무관하게 배울 수 있는 것들을, 혹은 시도한 것만으로도 해소할 수 있었던 염원과 생각을 물어버렸던 것은 아닐까. 어쩌면 결국 독립이 이루어진 것처럼, 나의 바람도 마침내 이루어졌을지도 모른다.

결과만을 형태적으로 파악하는 세계 속에 적응한다는 명목을 앞세워 무형의 가치들을 포기하고 있는 것 같다. 이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진정으로 바라던 삶을 살아가기란 여전히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치의 실현에서 의의를 찾으며 끊임없이 시도했던 어떤 화자처럼 자아의 신념을 믿고 순수하게 열망하는 누군가로 남고 싶다.

박주희(생명대 생명공학22)